

강진 병영상고 '설성 흙사랑', 축제수익금 기탁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강진군 병영상고에 도예반 창업 동아리 '설성 흙사랑' 학생들이 축제 부스 운영으로 마련한 수익금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다. 또한, 수익금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동아리를 위한 사용이 아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를 선택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병영상고는 지난 6일 병영면사무소에서 창업 동아리 설성 흙사랑 학생들이 마련한 성금 100만 원을 병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양은희·김용관)에 지정기탁했다.

병영상고는 병영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상업계 특성화고로, 지역 산업과 문화 자원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해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성금 전달도 동아리 학생들이 축제 부스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뒤, 수익금의 사용 방향까지 스스로 결정해 지역사회에 환원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며, 배움-실천-나눔이 순환되는 교육 모델을 보였다.

이번 성금은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린 제29회 전라 병영성축제에서 학생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부스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축제 기간 도예 소품을 제작·판매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 응대, 판매 관리 등 실제 창업 현장과 유사한 실무를 경험했다. 이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지역사회 기반 실천학습으로, 창업 역량과 직무 이해를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됐다.

서현린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마련한 수익금을 뜻깊은 곳에 나눌 수 있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배움과 나눔을 함께 실천하며 지역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욱 기자



기부나눔 100만원 전달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고민재 기자

무안군은 무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 4,2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부정유통 여부와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거래한 뒤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무안군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의심 가맹점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 확인과 사실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원팀으로 목포 대전환”



강성휘 목포 예비시장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목포시장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특히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호균 총장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민주당 원팀' 체제를 공식화했다.

강 후보는 최근 목포시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와 당원,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원이 국회의원과 민형배 전남광주

통합시장 후보,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 김산 무안군수 후보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특히 경선 경쟁자였던 이호균 목포과학대학교 총장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내부 결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날 강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지만 목포 발전이라는 목표는 하나"라며 "민주당 원팀으로 힘을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유빈 기자

“역대 최다 규모”...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354명 선발

전남 함평군이 역대 최다인 354명의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선발을 완료해 눈길을 끈다.

함평군은 "2026년 상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선발을 완료하고 6월 초까지 장학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함평군은 상반기 장학생 선발을 위해 지난 3월 말까지 장학생 모집을 하고, 선발 심사를 거쳐 354

명(대학생 297, 고등학생 37, 특기자 20)을 선발했다. 장학금 지급 예상액은 6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이번 선발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선발 인원보다 65명이 증가했으며, 예산 규모도 1억 8천만 원이 증가해 역대 최다 규모이다.

특히, 올해는 특기자 유형 선발인원을 '예산 범위 내'로 확대하고,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선발 인원을

확대해,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모두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역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함평이 교육하기 좋은 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신안군정원수협동조합 압해읍 작목반, 장학금 전달

신안군정원수협동조합 압해읍 작목반(압해읍이사 강성채)은 지난 7일 압해중학교에 고향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압해읍 작목반 회원은 131명으로 이번 장학금은 지난해 양묘사업에 참여한 회원 70명이 2,000만 원을 출연해 후배 양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했다. 압해읍 작목반을 대표해 김석훈 회원은 "어려운 농업 환경에도 고향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 출연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장학금이 미래의 꿈을 위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학생 대표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태완 교장은 "장학기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기탁 해주신 소중한 마음 잊지 않고 신안군을 빛낼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금연구역 합동점검 실시...신종 전자담배 단속 강화

영암군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합동점검에 나선다.

군은 오는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과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금연구역 2천17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군은 전체 시설의 10% 이상을 점

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등이 참여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금연구역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신종 전자담배 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군은 민

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금연 캠페인과 홍보 활동도 병행해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희숙 영암군보건소장은 "군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변을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요술랜드, 동물농장 등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테마파크

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